

# 유르스나르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미국의 영향\*

오 정 숙  
(경희대학교)

“Tout être qui a vécu l'aventure humaine est moi.”  
- Marguerite Yourcenar, *Mémoires d'Hadrien*

## 1. 서론 : 왜 미국인가?

본 연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인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 Marguerite Yourcenar가 47년을 미국에서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과 작품에 미친 미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다는 꼬리표를 떼고 나면, 유르스나르는 여전히 베일에 둘러싸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사빈 루시프 Sabine Loucif<sup>1)</sup>의 프랑스, 벨기에, 미국에서 유르스나르의 수용 양상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sup>2)</sup>,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가 활성화된데 반해 미국에서는 이 작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아주 미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작가가 태어난 벨기에에는 유르스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5684)

- 1) 미국 Hofstra University 프랑스학과 교수로서, 미국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를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 2) Sabine Loucif, "Marguerite Yourcenar face à la postérité : étude de réception transculturelle (France, Belgique, Etats-Unis)", in *Les diagonales du temps*, Bruno Blanckeman (dir.),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7, pp. 341-362.

나르 국제자료센터가 있기 때문에<sup>3)</sup>, 또 작가가 프랑스에서 유년기와 젊은 시절을 보내고 모든 작품을 프랑스어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39년에 도미해서 1947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할 때까지 47년을 미국에서 체류했고,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자필 원고를 포함해 대부분의 유작들을 하버드 대학의 휴턴 도서관(Houghton Library<sup>4)</sup>)에 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르스나르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첫 번째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사빈 루시프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04년 사이 유르스나르 관련 출판물(박사논문, 단행본, 학술지) 중 83%가 유럽에서 산출된 반면 9%만이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미국에서의 이 연구결과는 조르주 상드나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한 연구보다도 양적으로 훨씬 적은 것이다.<sup>5)</sup> 루시프는 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에서 특히 발전한 ‘여성문학 연구(Women studies)’의 범주에 상드나 보부아르와는 달리 유르스나르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sup>6)</sup> 코넬 대학 교수인 카롤 알라망(Carole Allamand)은 유르스나르가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로, 이 작가가 교육수준이 높은 특권층의 백인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때로 반유태주의적 관점을 피력하며, 전 작품에서 남성 중심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 혐오적 시각을 표출함으로써,

3) 유르스나르는 벨기에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브뤼셀에서 태어나지만, 출생 후 열흘 만에 어머니가 산욕열로 사망하자 아버지의 고향인 프랑스 노르 지방에서 성장한다. 벨기에인의 피를 물려받았고 유르스나르의 많은 작품이 벨기에를 포함하는 플랑드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벨기에에는 1989년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 국제자료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 Marguerite Yourcenar)가 창설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CIDMY : 65, rue des Tanneurs B-1000, Bruxelles, Belgique. yourcenar.marguerite.cid@skynet.be)

4) 휴턴 도서관은 하버드 대학의 97개 도서관 중 하나로 희귀본과 자필원고 전문 도서관으로 1942년 개관했다. 유르스나르는 이곳에 자필원고 및 편지, 일기 등을 기증하며, 이 자료들 중의 일부를 사후 50년간 봉인한 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5) Sabine Loucif, *op. cit.*, pp. 346-347.

6) *Ibid.*, p. 347.

1980년대 이후 미국 문학 비평을 이끌었던 해체주의나 페미니즘 비평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7)</sup>

유르스나르가 미국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 이외에도, 이 작가의 삶과 작품 속에서 미국, 또는 아메리카 대륙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프랑스에서조차 일천하기 그지없다. 작가로서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그녀의 작품 속에서 미국의 흔적을 찾기로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르스나르의 전기 작가였던 미셸 사르드 Michèle Sarde가 “미국에 살지 않고 어떻게 마운트 데저트 섬에 살았는가? Comment habiter Mount Desert Island sans vivre aux Etats-Unis?”<sup>8)</sup>라는 우회적인 질문에서 꼬집고 있듯이, 유르스나르는 미국의 북동쪽, 캐나다와의 국경에 위치한 메인주의 작은 섬, 마운트 데저트에서 미국 생활의 대부분을 은둔한 채 보낸다. 미국을 상징하는 현대문명이 닿지 않은 원시의 섬에서 로마 시대의 황제 하드리아누스와 르네상스 시기의 지식인 제논의 일대기를 집필했던 것이다. 유르스나르의 또 다른 전기 작가인 미셸 고슬라르 Michèle Goslar는 결국 이 작가에게 있어 “아메리카는 하나의 섬에 제한될 뿐”<sup>9)</sup>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47년에 걸친 미국 체류가 유르스나르의 삶과 작품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이토록 미미한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의 두 번째 문제제기이자 본 연구의 목적과 조우하기도 한다.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유르스나르에게 미친 미국의 영향을 밝혀보려는 연구가 조심스럽게 시도되었다. 그 연구의 중심은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바로 벨기에, 유르스나르 국제자료센터(CIDMY)의 연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CIDMY가 펴낸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와 아메리카』(1998)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총 7편의 에세이들이 실려 있다. 이 중, 유르스나르가 미국의 흑인들에게 관심을 갖

7) Carole Allamand, “Marguerite Yourcenar on Campus”, in *Marguerite Yourcenar et l'Amérique*, Bruxelles, Cidmy, 1998, p. 96.

8) Michèle Sarde, “De la prison à la planète la dimension universaliste de l'exil en Amérique”, in *L'Universalité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SIEY, 1995, pp. 175-183.

9) Michèle Goslar, Avant-propos de *Marguerite Yourcenar et l'Amérique*, p. 10.

게 된 계기와 흑인영가들을 모아 프랑스로 번역 출간<sup>10)</sup>하게 된 배경을 연구하고 있는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와 미국의 검은 비극」이라는 논문<sup>11)</sup>은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자 아마도 유일한 연구로, 벨기에의 유르스나르 연구자인 베랑제르 드프레Bérengrère Deprez가 미국에서 일 년 간의 박사 후 과정을 마친 후 출간한 저서인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와 미국. 항해자에서 파도가 되어』<sup>12)</sup>를 꼽을 수 있다. 유럽인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유르스나르의 족적을 연대기 순으로 밟고 있는 이 책은 본격적으로 작가에게 미친 미국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 본 연구의 구상과 방향에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절반 정도는 유르스나르가 한 미국인과 주고받은 미출간 편지들로 채워져 있고, 연구의 중심 테마가 미국 대자연의 발견이라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유르스나르의 문학작품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다음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각각적으로 밝혀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 정착한 이후 작가가 처음 발표한 희곡 『인어공주』(1942), 흑인영가 번역서인 『깊은 강, 어두운 강물』(1966), 마지막 소설인 『은둔자』(1982)를 중심으로, 유르스나르가 희곡, 번역, 소설이라는 다양한 문학작품의 창작과정을 통해 낯선 땅에 떨어진 자의 정체성의 위기를 거쳐 미국 흑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0) Marguerite Yourcenar, *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 Les «Negro Spirituals», Gallimard, 1966.

11) Georgia Hooks Shurr, "Marguerite Yourcenar et le drame noir américain", in *Marguerite Yourcenar et l'Amérique*, pp. 27-57. 이 단행본에 수록된 나머지 에세이들은 마운트 데저트 섬에 위치한 유르스나르의 집이자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쁘띠뜨 뽀레장스Petite Plaisance'에 대한 묘사나, 작가와의 교류에 얽힌 추억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연구 논문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

12) Bérengr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Racine, 2012, p. 206.

## II. 정체성의 위기와 유배의 글쓰기

### - 희곡 『인어공주 *La Petite Sirène*』(1942)

1939년 10월, 유르스나르는 세계 제 2차 대전의 포화를 피해 보르도에서 뉴욕 행 여객선에 몸을 싣는다. 6개월 예정으로 했던 여행이 미국 국적 취득과 더불어 47년의 반세기로 길어질지 이때만 해도 그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1939년부터 1949년까지의 미국체류 첫 십년을 일컬어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일했던 시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영혼의 밤 *nuit de l'âme*", 혹은 연금술의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하는 "흑의 단계 *l'oeuvre au noir*", "모든 문학적 야심을 버렸던 은둔의 시간"에 비유하곤 한다.<sup>13)</sup> 그녀는, 미국으로 가기 전, 한 번도 생계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았던 부유한 방랑자이자, 소설로 데뷔해서 10년 동안 5편의 소설을 발표 했었던 촉망받는 소설가였다. 연인이자 친구인 그레이스 프릭 외에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유르스나르는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여러 잡지에 기사를 기고하는 등 힘겨운 미국생활을 이어 나가며,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의 절망 *le désespoir d'un écrivain qui n'écrit pas*"<sup>14)</sup> 속에 깊이 빠지게 된다.

이 시기 유르스나르가 유일하게 집필한 문학작품이 바로 『알케스티스의 신비 *Le Mystère d'Alceste*』(1942), 『엘렉트라 혹은 가면의 추락 *Electre ou la Chute des masques*』(1942), 『인어공주 *La petite Sirène*』(1943)와 같은 희곡들이다. 조지안 사비뇨는 작가가 희곡 집필에 몰두하게 된 이유로 대화체에 의존하는 희곡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지적하며 "그녀가 겪고 있던 도덕적 나약함과 회의의 시기에 대화는 일종의 구원"<sup>15)</sup>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총 22쪽의 3막으로 구성된 소품인 『인어공주』는 미국 정

13) Matthieu Galey, *Les Yeux ouverts*, Paris, Le Centurion, 1980, p. 121, p. 122, p. 131.

14) Marguerite Yourcenar, *Mémoires d'Hadrien*, in *Œuvres romanesques*,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1, p. 522.

15)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 L'invention d'une vie*, Paris, Gallimard, 1993, p. 241.

착 초기 작가가 겪었던 심리적 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희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해트포트 박물관장이었던 에브렛 오스틴Everett Austin의 요청으로 프랑스로 써어 지지만, 같은 해 그레이스 프릭에 의해 영어로 번역돼 무대에서 몇 차례 상연된다. 코네티컷 주의 “해트포트 박물관은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자신에게 있어 떠난 유럽을 향해 열려진 창이자 은신처였다”<sup>16)</sup>고 그녀는 밝히고 있다. 재출간을 기념해 1970년에 쓴 서문에서, 유르스나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소품에 내 자신을 집어넣었으며”, “정체성도 목소리도 없이 다른 세계로 갑자기 옮겨진 이 존재cette créature brusquement transportée dans un autre monde, et s'y trouvant sans identité et sans voix”가 당시 자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함을 고백하고 있다.<sup>17)</sup> 1946년 장 발라르Jean Ballard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시기 자신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보낸 이 몇 해 동안, (...), 가장 끔찍했던 것은 사라져서, 물에 잠겨, 결국 단단한 땅이 없는 세상 한 가운데서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편지와 같이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받은 각각의 편지들은 제게는 진정한 기적, 적어도 잠깐만이라도 물에서 구조된 세상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지요.”<sup>18)</sup>

발 디딜 땅도 없이 물에 잠겨 사라져버린 세상 한 가운데서 떠다니는 느낌은 언어도 문화도 낯설기만 한 미국에서 본의 아니게 유배생활을 하게 된 당

---

16) Marguerite Yourcenar, “A propos d'un divertissement et en hommage à un magicien” de *La Petite Sirène*, in *Théâtre I*, Paris, Gallimard, 1971, p. 137

17) Marguerite Yourcenar, “A propos d'un divertissement” de *La Petite Sirène*, p. 146.

18) “Durant ces années passées à distance, (...), le plus affreux était ce sentiment de flotter au milieu d'un monde disparu, submergé, désormais sans terre ferme. Ce sentiment nous trompait : chaque lettre comme la vôtre reçue durant ces derniers mois de France, de Grèce, d'Italie, reste pour moi un véritable miracle, le message d'un monde au moins momentanément sauvé des eaux.”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Gallimard, Paris, 1995, p. 74.

시 작가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새 삶을 살고자하는 인어공주의 애달픈 처지를 대변하기도 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에 영감을 받은 드라마 소품 *Divertissement dramatique d'après le conte de Hans-Christian Andersen*”<sup>19)</sup>이라는 부제가 알려주듯이, 이 작품은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커다란 줄거리 틀과 비슷한 인물 체계, 유사한 상황을 가져온다. 요약하면, 인어공주는 덴마크의 왕자에게 반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내어준 대신 다리를 얻어 인간세계로 가지만, 노르웨이 공주와 결혼을 앞둔 왕자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하고, 결국 단도로 왕자를 죽여야만 하는 시점에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희곡에는 등장인물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인어공주, 왕자, 마녀, 이웃나라 공주라는 중심인물 외에, 울리히 백작과 난쟁이 두 명, 왕자의 시동 예공, 그리고 인어 합창단과 천사-새들 *les oiseaux-anges* 합창단이 등장한다. 작가 자신도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안데르센의 작품이 어린이를 위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짜 동화의 전형이라면, 유르스나르의 『인어공주』는 인간과 연관된 모든 것이 풍자적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서정적인 드라마 *un drame lyrique*”<sup>20)</sup>라고 할 수 있다. 난쟁이들은 거칠고 음탕하며, 울리히 백작은 늘 무게를 잡고, 공주는 멍청하고, 왕자는 자아도취적이며 우유부단하다. 제 1부에서, 인어공주는 테라스에 서 있는 왕자에게 첫 눈에 반하게 되고, “가장 못생긴 피조물 *la-plus-laide-des-créatures*”<sup>21)</sup>인 바다 마녀에게 여자의 다리를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 준다. 제 2부에서, 노르웨이 공주와 결혼을 하루 앞둔 왕자는 곧 누리지 못하게 될 남자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해변을 산책하다가 쓰러져있는 인어공주를 발견하게 된다. 제 3부에서 인어공주는 말을 하지 못하자 조롱거리가 되고, 제 4부에서는 서커스 복을 입고 춤이라도 출 준비를 하며, 노르웨이 공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왕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뿐이다.

인어공주는 지속적으로 “어린 병어리 *la petite muette*”, “목소리 없는 소녀

19) Marguerite Yourcenar, *La Petite Sirène*, p. 135.

20) *Ibid.*, p. 147.

21) *Ibid.*, p. 153.

*petite fille sans voix*"로 지칭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임이 강조되거나, 또는 "어린 야생초*jeune plante sauvage*", "주어온 아이*une enfant trouvée*"로 불림으로써 고아와 다름없음이 암시된다.<sup>22)</sup>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구해다 준 단도로 잠든 왕자를 찌르려하지만, 이 때 천사-새들이 나타나, 날개 없는 육신을 포기할 것을, 여인의 몸을 파도에 던져버릴 것을 노래한다. 결국 인어공주는 칼을 떨어뜨리고 천사-새들에 둘러 싸여 팔을 내미는 것으로 희곡은 마무리 된다.<sup>23)</sup>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변해버리는 안데르센의 동화와 달리, 유르스나르의 인어공주의 죽음을 초월 또는 상승의 이미지와 연결시킨다. 희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천사-새들의 합창을 들어보자.

“네 여자 모습을 파도에 던져 버려라!... 바다 위를 스치는 자유로운 갈매기여, 너의 영혼은 우리를 향해 승천하리니! 죽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고귀한, 날개 달린 외침이며, 영원한 심장이며, 거품 너머로, 저 창공 너머로 우리와 함께 날아 오르렴!”<sup>24)</sup>

이 희곡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마리아 카바주티의 지적처럼 사랑의 고통,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랑의 실패를 통해 보다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입문적 여정*un parcours initiatique*”<sup>25)</sup>이다. 사랑의 실패라는 테마는 전기 유르스나르의 작품 세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이자, 그녀에게 있어 사랑은 역사나 지식, 꿈이나 성스러움처럼 보다 완성의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인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인어공주』가 “유르스나르 작품세계와 글쓰기를 잘 보여주는 소우주”<sup>26)</sup>라는 카바주티의 결론과 조우하게 된다.

22) *Ibid.*, p. 164, p. 167.

23) “La petite Sirène laisse tomber son couteau. Elle tend les bras, entourée par les Oiseaux-Anges.”, *Ibid.*, p. 172.

24) “Jette aux vagues ta forme de femme!... Ton âme montera vers nous, libre mouette rasant la mer! Trop pur pour la mort, trop haut pour l'amour, cri ailé, coeur éternel, vole avec nous par-delà l'écume, par-delà l'espace!” Marguerite Yourcenar, *La Petite Sirène*, p. 171.

25) Maria Cavazzuti, "La petite sirène : une écriture solipsiste de l'amour". in *Marguerite Yourcenar. Écritures de l'autre*, Montréal, XYZ, p. 264.

26) *Ibid.*, p. 264.



물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거쳐 천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인어공주의 여정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옮겨 와 ‘영혼의 밤’을 보내며 비상의 단계를 준비하는 작가 자신의 여정과 일맥상통한다. 유르스나르는 서문에서 이 희곡을 집필할 당시 메인 주를 처음으로 방문해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태초의 바다를 막 발견한 시기라고 밝히며, 자기 자신의 성숙 과정을 인어공주의 그것과 다음과 같이 연결 짓고 있다.

“고고학에서 지질학으로, 인간에 대한 명상에서 지구에 대한 명상으로의 이행은 내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그렇게 느껴진다. 비록 이 과정이 종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단절과 깨달음을 통해, 곡에서 놀이와 원한의 단점을 던져 버리고 원래 그녀가 속했던 태초의 세상으로 들어간 인어공주는, 지금에서야 보니, 예시이자 상징이었다.”<sup>27)</sup>

여기서 유럽과 미국, 구대륙과 신대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요소, 즉 문명과 자연<sup>28)</sup>은 대척점에 있는 이질적인 두 세계로, 작가는 인어공주처럼 자신에게도 “고고학에서 지질학으로의 이행, 인간에 대한 명상에서 대지에 대한 명상으로의 이행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인어공주』는 유르스나르가 미국에 적응하면서 구문명에서 신문명으로, 인간에서 자연으로 시야를 옮겨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27) “Ce passage de l'archéologie à la géologie, de la méditation sur l'homme à la méditation sur la terre, a été et est encore par moments ressenti par moi comme un processus douloureux, bien qu'il mène finalement à quelques gains inestimables. De cette rupture et de cet acquis, la petite sirène abandonnant ses jeux d'acrobate et le poignard de ses rancunes pour rentrer dans le monde primordial dont elle est sortie était, je m'en aperçois aujourd'hui, à la fois la préfiguration et le symbole.” *Ibid.* p. 146.

28) 유르스나르는 한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내가 유럽에 남아있었다면 (...) 더욱 더 과거에 연결된 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유적지라는 것들 역시 모두 고대 전설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 여기에 와서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무정형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변화는 아주 유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내가 점점 더 자연환경과 나무,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여기서이지요”, *Matthieu Galey, Les Yeux ouverts*, p. 137.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미국 흑인의 ‘검은 비극le drame noir’과 인권의 옹호 - 흑인영가 『깊은 강, 어두운 강물*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1966)

1945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유르스나르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 결국 미국에 남기로 결심한다. 마티외 갈레에게, “프랑스가 해방됐을 때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메인 주에 집도 있고, 친구들과 갓 시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내 삶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sup>29)</sup>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점차 아메리카 문명에 적응하며<sup>30)</sup>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실 유르스나르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양차대전을 겪으며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 및 지식인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할 때,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는 어떤 관심도 표명하지 않고 여행을 즐겨하던 부유한 작가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1951년은 유르스나르의 대표작이 될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Mémoires d'Hadrien*』이 파리에서 출간된 해다. 이 소설의 출간을 기점으로 그녀는 무명작가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각광받으며 화려하게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다. 2세기 로마의 실존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의 삶을 1인칭 회고적 문체로 서술하고 있는 이 장편 역사 소설에서 미국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싶어 했던 이 황제의 감동적인 초상을 통해 작가는 점차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세계 제 2차 대전 후, 냉전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양분하고 알제리 독립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 유르스나르는 플레이야드 판의

29) *Ibid.*, p. 129.

30) “j’ai fini par aimer beaucoup ce pays, ou du moins certains endroits et certains êtres”,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p. 81.

<작가 연보>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1955년에서 1958년부터,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는 현대 사회의 오류와 악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고, 유럽에서만이나 미국에서도 인권 보호, 평화 수호 투쟁, 핵 확대 및 인구과밀 반대 투쟁, 동물·공기·물·자연환경 보호 투쟁을 위한 수많은 단체에 가입한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암시가 그녀 작품에서 점점 더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몇몇 신문기사나 선언문에서도 이런 방향성이 점차 드러나게 된다.”<sup>31)</sup>

유르스나르가 미국의 흑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현대 사회의 오류와 악”을 인식하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플레이야드의 <작가 연보>에 따르면,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와 그레이스 포릭은 또 다시 미국 남부, 버지니아, 켄터키에서 체류한 후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에 이르게 된다. 이 여행을 통해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는 흑인들의 비참함과 사회통합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목격하게 된다”<sup>32)</sup> 그녀는 이와 같은 수차례의 여행을 통해 이십여 년 동안 미국 전역에 흩어진 흑인영가(negro spirituals)를 수집하고 이를 프랑스로 번역해서 주석까지 달아 『깊은 강, 어두운 강물』이라는 책을 1966년 갈리마르에서 출판한다.<sup>33)</sup> 이 책은 “미국

31) “A partir de ces années 1955-1958, Marguerite Yourcenar, de plus en plus préoccupée des fautes et des maux de la société contemporaine, adhère tant en Europe qu'aux Etats-Unis à de nombreux groupements de défense des droits civiques, de lutte en faveur de la paix, contre la prolifération nucléaire, contre la surpopulation, et pour la protection de l'animal, de l'air, de l'eau, et du milieu naturel. Non seulement les allusions à ces sujets deviennent de plus en plus fréquentes dans ses ouvrages, mais encore quelques articles de journaux ou déclarations, non mentionnés ici, signalent désormais cette orientation.” Marguerite Yourcenar, *Œuvres romanesques*, Chr, XXVII.

32) *Ibid.*, Chr, XXVII.

33) Marguerite Yourcenar, *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 Gallimard, 1966. 유르스나르는 흑인영가 외에도 적지 않은 번역 작품을 남겼다. 파렐은 유르스나르가 번역한 작가들(콘스탄틴 카바피, 유끼오 미시마 등)의 대부분이 그녀 자신처럼 유배의 경험이 있었던 사실에 주목한다. Edith Farrell et C. Frederick Farrell, "En exil, on revit", in *Marguerite Yourcenar. Ecritures de l'exil*, Academia-Bruylant, 1997,

흑인들의 신비주의와 서민적 시에 관한 연구이자 이러한 신비주의와 시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프랑스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백여 편의 흑인영가로 구성되어 있다”<sup>34)</sup>.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작가는 수년 동안 미국 남부의 시골과 농장들을 돌아다니며 사라져가는 이 인류의 유산을 기꺼이 직접 채록하고 분류하고 프랑스로 번역하는 고되고 힘든 작업을 몸소 해 내며,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얻는다.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 인간의 박애정신이 없다면 자유도 평등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프랑스 공화국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고 남용했지만 (...) 지금까지 잘 실행되지 못했던 그 ‘자유-평등-박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찬양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sup>35)</sup>

유르스나르가 직접 작성한 64 쪽에 달하는 이 시집의 서문은 유럽과 미국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흑인을 노예화하게 되는 경로와 이유를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학술적 에세이이자, 흑인영가에 담겨 있는 삶의 애환과 문화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예술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문에서 유르스나르는, 고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문명에 매혹되었던 고대 유럽 시절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로 이어지는 식민지 개척 시대<sup>36)</sup>에 대한 간략한 기술을 거쳐, 1619년에 네덜란드의 한 노예 상인이 현재의 버지니아 주에 스무 명의 첫 번째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왔음을 지적한다. 1799년에 이들의 수는 버지니아 주에서만 이십만 명에 이

---

pp. 101-107 참조.

34)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 L'invention d'une vie*, p. 438.

35) “Il n'y a pas de liberté sans égalité ; comme ni l'une ni l'autre ne sont possibles sans le sentiment de la fraternité des êtres, peut-être vaut-il la peine de faire pour une fois l'éloge de la formule dont a usé et abusé la France républicaine, et qui (...) ne paraît creuse que parce que jusqu'ici elle n'a guère été appliquée”, Marguerite Yourcenar, *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 p. 25.

36) 1967년에 쓴 한 편지에서, 유르스나르는 15세기와 16세기에 유럽인에 의한 식민지 개척이 세계 역사에서 과대평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p. 263 참조.

르게 된다. 1818년에 프랑스에서 왕정복고 시대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을 시발점으로 1833년에는 영국에서, 1866년에는 미국에서 노예제가 금지된다. 그녀는 1852년 출간된 해리엇 비처 스토티의 『툼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문학적으로는 평범한 작품이었지만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작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7)</sup> 20세기 들어, “어제의 비극이 노예 제도였다면 오늘의 비극은 사람에게 대한 적대감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선동, 즉 인종차별주의”<sup>38)</sup>라고 작가는 지적한다.

19세기 흑인 노예들의 “뜨거운 목소리 la voix chaude”로 불려 지던 이 노래들은 “아프리카 미국인인 (흑인) 시인의 꿈과 체념, 은밀한 반항, 깊고 깊은 고통과 단순한 기쁨, 죽음에 대한 강박과 신을 향한 경배”를 밀도 있는 리듬감으로 표현한 “진정한 걸작품 authentiques chefs-d'oeuvre”이다.<sup>39)</sup> 유르스나르는 이 노래에 담긴 그들의 슬픈 역사에 주목하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자 삶의 노예라는 점에서 이 흑인영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테마”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증언들 중의 하나 sa place parmi les grands témoignages”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강조한다.<sup>40)</sup>

낯선 땅으로 갑자기 옮겨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 유르스나르는 대화체 문장으로 이루어진 여러 편의 희곡을 집필함으로써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위기 극복 방법은 낯선 땅의 타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란체스카 쿠니한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르스나르에게 있어서 “번역이라는 방법은 타자에게 다가가 타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타자성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시도”<sup>41)</sup>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체류 초기부터 그녀

37) Marguerite Yourcenar, *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 p. 17.

38) *Ibid.*, p. 29.

39) *Ibid.*, p. 7.

40) *Ibid.*, pp. 62-63.

41) Francesca Cunihan, "Accueillir l'Autre dans son altérité : les traductions américaines de Marguerite Yourcenar", in *Marguerite Yourcenar. Écritures de l'autre, op. cit.*, p. 117.

가 흑인영가의 채록과 번역에 매달려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유르스나르 자신도 『블루스와 가스펠*Blues et Gospels*』서문에서 흑인영가를 부른 흑인 가수들과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번역가로서의 작업을 그들의 시민권 투쟁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sup>42)</sup> 타자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압박받는 타자, 즉 흑인이라는 타자에 다가가고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생존 투쟁을 같이 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작가인 유르스나르에게 있어서 그들의 애환과 역사가 담긴 흑인영가를 번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란체스카 쿠니한은 유르스나르가 흑인영가를 번역하는 데 있어, 즉 타자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조심스레 지적한다. 쿠니한은 문화적 모델*modèle culturel*, 가치 판단*jugements de valeur*, 언술*énonciation*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깊은 강, 어두운 강물』의 서문을 분석한 후, 이 요소들이 실제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번역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sup>43)</sup> 먼저 문화적 모델의 차원에서 유르스나르는 유럽 중심적 모델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유럽문화에 비추어 흑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흑인영가에서 표현되는 종교적 심성은 유럽의 중세 종교 문화와 비교되지만, 유럽 중심적 모델은 가치 판단과 그대로 연결되어 전자는 단순하고 원시적이어서 저급한 반면 후자는 섬세하고 정련되어 있어 고급한 정신세계를 표상한다고 유르스나르는 본다는 것이다. 언술 차원에서, 작가는 노래를 부르는 흑인 언어의 단순성과 원시성을 프랑스어 번역에 그대로 옮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표현과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니한은 번역을 통해 타자를 수용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사실상 “실패한 만남”인데, 왜냐하면 “타자는 동일자의 기준을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sup>44)</sup>

하지만 『깊은 강, 어두운 강물』이 파리에서 출간됐을 때, 언론의 반응은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이브 베르제Yves Berger는 <르몽드Le Monde>에 동

42) Marguerite Yourcenar, *Blues et Gospels*, Gallimard, 1984, p. 8.

43) Francesca Counihan, "Accueillir l'Autre dans son altérité : les traductions américaines de Marguerite Yourcenar", p. 119. 본문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분석은 쿠니한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44) *Ibid.*, pp. 125-126.

일한 원전을 옮긴 유르스나르와 심 코펜스Sim Copans의 번역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유르스나르의 번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눈에 보이고 있다.<sup>45)</sup>

심 코펜스의 번역	유르스나르의 번역
<p><i>On ne me vendra plus aux enchères, Jamais plus, jamais plus. On ne me vendra plus aux enchères, Des milliers sont partis Je ne vivrai plus du boisseau de maïs (du maître)</i></p>	<p><i>Plus d'bloc au marché pour moi! Oh, jamais plus! Plus d'coups d'fouet sur l'dos pour moi! Oh, jamais plus! (Par milliers, les hommes sont partis.) Non, plus d'rations d'maïs pour moi! Oh, jamais plus!</i></p>

일반 독자가 보더라도 위 두 번역을 비교해볼 때 코펜스의 번역이 산문적이고 평면적인데 비해 유르스나르의 번역은 시적인 축약을 통해 흑인영가의 노래적 특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쿠니한이 연술의 차원에서 유르스나르가 의도적으로 저급한 흑인언어를 반영했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e’의 생략이다. 하지만 이 ‘e’의 생략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흑인들에게서도 빈번히 보이는 언어적 현상이며 프랑스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 쿠니한의 지적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영가에 담겨있는 그들만의 애환과 언어적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유르스나르의 노력은 오히려 이 타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그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역사 동안 억압받아온 미국 흑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녀가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은 확실하다. 1968년에 쓴 한 편지에서 유르스나르는 “미국에서는 전쟁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만 한다”<sup>46)</sup>, 즉 정치적 행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편지 이후 그녀는 파리를 방문해 1968년

45)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 L'invention d'une vie*, p. 331에서 재인용.

46)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p. 286.

5월의 격동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이후 다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시기 프랑스는 매우 흥미로웠고,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와 학생들이 옳다고 생각한다”<sup>47)</sup>라고 적고 있다.

베랑제르 드프레는 유르스나르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변모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레이스 프리크 Grace Frick이라고 강조한다. 프리크는 작가의 연인이자 47년의 미국생활의 동반자였으며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훌륭한 번역자였다. 예일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중에 유르스나르를 만나 자신만의 인생은 포기했지만, 그녀는 “정의에 대한 열정 *une passion pour la justice*”을 가진 인물로 작가를 미국 남부로 이끌어 흑인 노예들의 실상을 알게 해 주었고, 인디언과 같은 원주민들의 인권문제, 정치시위, 비폭력 문제, 환경보호 등의 각종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 준 미국의 “문화 대사이자 미국 흑인들의 투쟁 전도사”*ambassadrice de la culture et des combats des Noirs américains*”였다.<sup>48)</sup>

1930년대 어느 문학 유파나 정치적 입장에도 동조하지 않았던 젊은 유르스나르를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이 작가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자연으로의 회귀와 인간성의 회복

##### - 소설 『은둔자 *Un homme obscur*』(1982)

미국의 흑인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유르스나르는 한편으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인디언, 암환자, 성적 소수자 등)에게 점차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유르스나르는 미국 체류 이후부터 특히 야생동물, 식물, 환경보호 단체의 후원 활동에 생의 열정을 바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프랑

47) *Ibid.*, p. 288.

48)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 46, p. 48. 참조.



스의 동물보호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브리짓 바르도에게 1968년에 쓴 편지에서, 유르스나르는 캐나다 물개들의 잔인한 도륙 현장을 고발하며 야간 사냥 및 동물 학대 금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한다.<sup>49)</sup> 이 편지에서 그녀는 바르도가 “여성 대중을 설득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맺가로 얻어진 옷이나 악세사리를 보이코트” 해 줄 것을, 또한 “캐나다 총리에게 편지를 쓰거나 (...), 아니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 비극적인 물개 가족의 사용에 대해 항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sup>50)</sup> 그녀가 미국과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인권 및 환경 보호 단체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가까운 친척 한 명 없었던 유르스나르는 여러 번의 유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과 앞으로의 인쇄 수입 등과 관련해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을 실현한다.<sup>51)</sup>

1982년에 발표된 『은둔자』는 유르스나르의 마지막 소설로, 환경론자이자 자연보호론자로서의 작가의 입장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하드리안누스의 회상록』에 이어 1968년에 장편소설 『흑의 단계 L'Oeuvre au Noir』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후, 이후 자서전 삼부작 중의 두 권인 『경건한 추억들 *Souvenirs pieux*』(1974)과 『북쪽 지방의 고문서 *Archives du Nord*』(1977)를 출간하면서 작가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1981년에는 1635년 프랑스의 재상 리슐리외에 의해 설립된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345년 만에 최초의 여성회원으로 입회하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영광의 절정에서 그녀가 내 놓은 마지막 소설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한 섬에서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은둔자 나타나엘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유르스나르는 이 책의 후기에서 주인공 나타나엘의 탄생 배경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서른 살 무렵에 나타나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구상한 적이 있었지만 삶의 우여곡절 속에 잠시 망각하고 만다. 1957년,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

49)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pp. 278-283.

50) *Ibid.*, p. 280.

51) 전 재산의 사회 환원 내역에 대해서는, *Marguerite Yourcenar et l'écologie*, Cidmy, bulletin n. 2, 1990, pp. 92-95 참조

등지에서 강연이 있어 그녀는 새벽 2시에 딱 한 번 지나가는 몬트리올행 기차를 타기 위해 마운트 데저트 섬의 기차역에 한밤중에 도착한다. 눈 덮인 시골 간이역에서 한밤중에 추위와 싸우며 기차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그녀는 “2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타나엘의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sup>52)</sup>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 기적이 작품으로 완결되기까지는 아직도 2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 마지막 소설은 그 재탄생부터 유르스나르가 45년 동안 살아 왔고 사랑했던 미국 메인주의 마운트 데저트 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7세기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나타나엘은 조용한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후 청년기에 배를 타고 모험길에 오르게 된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섬에 대한 묘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자.

“문제되는 그 섬은 지도에 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높고 바위가 많았으며, 낮은 곳은 소나무와 떡갈나무로 덮힌 그 섬의 여섯 일곱 개의 산 정상이 멀리서도 보였다. 거기서 값나갈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남쪽으로 만이 깊게 패여 바람을 완벽히 막아주는 거대한 천연 항구를 이루고 있었다. 타원형의 작은 섬이 그 입구를 보호해주고 있었다.”<sup>53)</sup>

나타나엘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섬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된다. 소설에서 그 섬은 “마운트 데저트 섬에서 멀지 않았고”<sup>54)</sup>, “잃어버린 섬 l'Île Perdue”<sup>55)</sup>으로 불렸다는 묘사도 등장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섬에 대한 묘사

52) Marguerite Yourcenar, *Un homme obscur*, in *Œuvres romanesques*, p. 1067.

53) “L'île dont il s'agissait n'était marquée que depuis peu sur les cartes. Haute et rocheuse, couverte dans ses régions basses de sapins et de chênes, on reconnaissait de loin ses six ou sept sommets. On n'y trouvait rien de précieux, mais un bras de mer la pénétrait profondément au sud, formant un vaste port naturel merveilleusement abrité du vent ; un îlot ovale en protégeait l'entrée”.  
*Ibid.*, p. 951.

54) *Ibid.*, p. 998.

55) *Ibid.*, p. 987.

는 작가가 살았던 마운트 데저트 섬과 인근 섬들의 실제 역사 및 풍경과 그대로 일치한다. 마운트 데저트 섬 일대는 프랑스의 탐험가 사뮈엘 드 샹플랭 Samuel de Champlain이 처음으로 발견해 1607년에 지도에 표기된다.<sup>56)</sup> 소설 속 'l'Île Perdue'라는 지명은 샹플랭의 지도에 실제로 'Isles Perduës'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이 섬은 지도상에서 마운트 데저트 섬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쯤 떨어져 있다. "지도에 표기된 지 얼마 안 된 섬"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높고 가파른 바위 산이 일곱 여덟 개쯤 솟아 있고 남쪽으로는 바닷물이 깊게 휘감아 들어오는 천연 항구를 지닌 섬이라는 표현 역시 실제 섬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쁘띠뜨 뽀레장스의 서재에 사뮈엘 드 샹플랭이 1613년 파리에서 출간한 여행기<sup>57)</sup>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르스나르는 이 첫 번째 발견자의 기록을 통해 마운트 데저트 섬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랑제르 드프레의 연구에 의하면, 마운트 데저트 섬의 주민이자 그녀의 이웃이었던 새뮤얼 모리슨이 1960년에 발간한 지역 연감을 통해 섬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된다.<sup>58)</sup> 즉 『은둔자』는 짧은 시절엔 상상의 형태로 잉태되었다가, 마운트 데저트 섬의 간이역에서 구체적으로 구상되고, 몇 년 후 지도 및 지역 문헌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이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엘은 영어, 네덜란드어, 라틴어, 인도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물이지만, 섬에서 살게 된 이후로 “거의 말의 중개 없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ceux qui pensent presque sans l'intermédiaire des mots”<sup>59)</sup>이 되

56) 이 지도는 베랑제르 드프레의 저서에서 참조할 수 있다.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 66.

57) Samuel de Champlain, *Voyages du Sieur de Champlain*, Paris, 1613, Jean Berjon.

58) Samuel Eliot Morison, *The story of Mount Desert Island*, 1960.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p. 67-69 참조. 유르스나르 자신도 소설의 후기에서 작품 속에 실제 역사의 부분을 적당히 삽입했음을 밝히고 있다, <Postface> de *Un homme obscur*, p. 1068.

59) Marguerite Yourcenar, *Un homme obscur*, p. 1069.

어 푸른 바다와 파도소리, 물개, 사슴, 곰과 같은 야생동물, 태초 그대로의 자연과 합일하며 사는 자연인으로 묘사된다. 나타나엘의 삶은 직접 경작한 밀로 빵을 굽고 야생 동식물에 둘러싸여 소박한 삶을 살았던 작가 자신의 삶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레이스 프리크는 마운트 데저트 섬에서 만난 수많은 야생동물에 대해 세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유르스나르는 이런 기록들을 이 소설에 자연스럽게 삽입시키곤 한다. 산책 중에 곰을 마주쳤던 경험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레이스 프리크의 기록	유르스나르의 소설 속 묘사
<p><i>Nous vîmes un grand ourson noir sur la route devant nous, qui ne prit pas la fuite. Après avoir grondé une ou deux fois, il s'assit et commença à manger paisiblement des baies, qu'il ratisait du buisson dans sa gueule avec ses deux pattes, alternativement.<sup>60)</sup></i></p>	<p><i>Bien que les ours fussent rares dans l'île, où ils ne s'aventurent guère qu'en hiver, soutenus par la glace, Nathanaël en vit un, en pleine solitude, ramassant dans sa large patte toutes les framboises d'un buisson et les portant à sa gueule avec un plaisir si délicat qu'il le ressentit comme sien.<sup>61)</sup></i></p>

베랑제르 드프레가 너무도 멋지게 지적한 것처럼 “유르스나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그것은 부유함이나 소비에 대한 드림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sup>62)</sup>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소설은 자연으로의 회귀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그녀의 궁극적인 꿈을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소박하게 구현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60)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 49에서 재인용.

61) Marguerite Yourcenar, *Un homme obscur*, p. 929.

62)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 60.

##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1939년 미국행 배를 탄 이후 1987년 메인 주의 작은 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47년을 미국에서 보냈던 프랑스의 대작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문학작품에 미친 미국의 영향에 대해 희곡, 번역, 소설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유르스나르는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 생활이 자신의 작품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반복해서 얘기해 왔다. 1976년 문학잡지 <리르Lire>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문학적 차원에서 자기에게 영향을 준 것이 없지만, 비문학 영역에서는 몇 가지 영향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sup>63)</sup>고 밝히고 있다. 마티외 갈레와의 대담에서는, “미국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아직도 잘 아는 게 없어서 40년이 지났지만 미국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sup>64)</sup>라고 말하고 있다. 『깊은 강, 어두운 강물』의 출간에 즈음하여 가스통 갈리마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책은 ‘미국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 첫 번째 책”<sup>65)</sup>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작가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체류가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유르스나르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장르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이미 조명해 보았다.

미국 정착 초창기에 집필된 희곡 『인어공주』는 인어에서 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왕자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동화 인어공주에서 즐거리를 가져와, 유럽인에서 미국인으로, 소설가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새로운 정체성에 직면한 유르스나르의 내면적 갈등과 위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유쾌하게 담아낸 소품이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인어공주가 거품으로 변했다면, 유르스나르는 사랑의 실패를 통해 더욱 더 성숙하는 인어공주의 영혼의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는 작가 자신의 정신적 여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흑인영가의 번역서인 『깊은 강, 어두운 강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르

63) *Ibid.*, p. 27에서 재인용.

64) Matthieu Galey, *Les Yeux ouverts*, p. 193.

65)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 L'invention d'une vie*, pp. 440-441에서 재인용.

스나르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동반자 그레이스 프릭의 영향으로, 작가는 미국 남부에 수차례 체류하며 이십여 년에 걸쳐 흑인영가의 수집과 채록, 번역이라는 고된 작업을 통해 미국이라는 땅에서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외된 자들의 고통과 희망의 노래를 값지게 구현해 낼 수 있었다. 비록 일부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유럽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백인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흑인 문명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번역 속에 드러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번역은 르네상스 시기 서구열강의 침략과 야욕에 의해 노예로 전락했던 흑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압축적이며 시적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흑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억압받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심화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식물과 환경 보호로 확장되어 유르스나르가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 보호론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마지막 소설 작품인 『은둔자』는 지도에 표기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섬에서 자연과 어울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나타나엘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우리는 이 소설이 작가가 반평생을 보냈던 마운트 데저트 섬의 역사와 풍광을 허구의 틀 속에 얼마나 그대로 녹아내고 있는지를 매우 흥미롭게 조명해 보았다.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인공 나타나엘을 통해, 유르스나르는 “사는 사람도, 이름도 아직 없는 시대”<sup>66)</sup>, “인간의 목소리와 연장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 침묵”<sup>67)</sup>의 세상, “권력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키기”<sup>68)</sup> 전의 세상에 대한 열망을 구현한다.

비록 자신의 문학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르스나르는 자신의 대표작이자 미국에서 씌어 진 두 소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과 『흑의 단계』가 탄생하게 된 데는 바로 이 미국에서의 경험이 매우 지대했음을 한 편지에서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6) Marguerite Yourcenar, *Archives du Nord*, p. 954.

67) *Ibid.*, p. 956.

68) *Ibid.*, p. 957.

“또한 나만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에 마지막 판본을 쓴, 하드리아누스에 관한 책은 어떤 면에서 안티 히틀러나 안티 스탈린이라고 할 수 있을 한 천재의 모습에 천착 합니다 (...). 15년 후에, 그리고 환상의 깨어짐과 잔혹함 속에 소용돌이처럼 빠졌었던 몇 년 후에 완성된 제논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 삶, 인간 그 자체의 특정한 공포에 우리 모두처럼 사로 잡혀 있습니다.”<sup>69)</sup>

2세기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와 르네상스 지식인 제논은 전형적인 유럽인의 표상이자 두 소설의 내용 역시 유럽의 문명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르스나르의 대표작들은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위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두 소설에는 작가 “자신만의 조건”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진하게 강조 된 부분은 작가가 자필로 왼쪽 여백에 덧붙인 것을 편집자가 삽입한 것으로, 두 소설을 가르고 있는 15년 사이에 유르스나르 자신이 참혹한 현실과 환상의 깨어짐을 경험하며 얼마나 지옥으로의 하강을 경험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논이라는 인물은 작가 자신처럼 세상과 삶, 인간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힌 인물로 형상화 된다. 제논이 의술을 가지고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자 애썼다면, 유르스나르는 글쓰기를 통해 미력하나마 세상을 구원해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는 제논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종종 소개한다. 베랑제르 드프레 역시 “겉보기엔 현대 미국과 너무도 동떨어져 보이는 이 작품들이 실제로는 그 당시 그녀의 관심사들을 반영하고 있다”<sup>70)</sup>고 지적한다.

69) “Il y a aussi mon conditionnement à moi. Ecrit en dernière version entre 1948 et 1950, le livre sur Hadrien s'accroche à l'image d'un homme de génie qui serait en quelque sorte l'idéal anti-Hitler ou anti-Staline (...). Zénon, achevé quinze ans plus tard, et **quelles années de descente en spirale dans le désillusionnement et l'atroce**, est en proie comme nous tous à l'horreur spécifique du monde et de la vie tels qu'ils nous entourent, et de l'humain lui-même.” Marguerite Yourcenar,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pp. 291-292. 필자 강조.

70) Bérengère Deprez,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p. 13.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통해 유르스나르는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위대한 전환점le Grand Tourmant’을 맞게 된다. 그녀가 흑인의 인권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생전과 사후에 참여하거나 새롭게 만든 주요 인권단체 및 환경보호 단체의 목록만 봐도, 우리는 그녀가 인본주의적 작가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작가의 기금과 유언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체는 유르스나르 기념사업관Petite Plaisance Trust,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 박물관Musée de Marguerite Yourcenar,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 재단 Fondation Marguerite Yourcenar, 유르스나르의 집Maison de Marguerite Yourcenar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 작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인권 및 환경 보호 단체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이어지는 후속 연구는 유르스나르와의 관련 하에서 이들 단체나 기관들의 연혁, 사업목적 및 운영계획, 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전반적인 사회에 미친 영향관계 등을 총합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유르스나르의 사례는 전통적인 문학연구의 기반 위에 환경·문화연구라는 새로운 융합적 시각에서 더욱 더 모범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 I.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의 작품

- Œuvres romanesques*,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1, 1363 p.  
*Essais et Mémoires*,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1, 1693 p.  
*Archives du Nord (Le Labyrinthe du Monde II)*, Paris, Gallimard, 1977.  
*Blues et Gospels*, Gallimard, 1984.  
*Fleuve profond, sombre rivière*, Les «Negro Spirituals», Gallimard, 1966.



*Lettres à ses amis et quelques autres*, Gallimard, Paris, 1995, 715 p.

## II.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에 대한 연구

### 1. 대담

CHANCEL Jacques, *Radioscopie, Entretiens radiophoniques avec Marguerite Yourcenar*, (France-Inter, 11-15 juin 1979), Paris, éd. du Rocher, 1999, 137 p.

GALEY Matthieu, *Les Yeux ouverts*, Paris, Le Centurion, 1980, 336 p.

ROSBO Patrick de, *Entretiens radiophoniques avec Marguerite Yourcenar*, (France-Culture, 11-16 janv. 1971), Paris, Mercure de France, 1972, 172 p.

### 2. 전기

GOSLAR Michèle, Yourcenar. «*Qu'il eût été fade d'être heureux*», Bruxelles, Racine, 1998, 404 p.

SAVIGNEAU Josyane, *Marguerite Yourcenar : L'invention d'une vie*, Paris, Gallimard, 1990, 542 p.

### 3. 연구서

오정숙,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 영원한 방랑자』, 중심, 2007, 279 p.

BERNIER Yvon, *Petite Plaisance. Marguerite Yourcenar 1903-1987*, Northeast Harbor, 36 p. (illu.)

DEPREZ Bérengère, *Marguerite Yourcenar et les Etats-Unis. Du nageur à la vague*, Racine, 2012, 206 p.

GAUDIN Colette, *Marguerite Yourcenar à la surface du temps*, Amsterdam, Rodopi, 1994, 143 p.

JULIEN Anne-Yvonne, *Marguerite Yourcenar ou la signature de l'arbre*, puf, 2002, 288 p.

JULIEN Anne-Yvonne, *Marguerite Yourcenar du Mont-Noir aux Monts-Déserts*, Paris, Gallimard, 2003.

### 4. 잡지, 콜로키움

*Marguerite Yourcenar et l'écologie*, Cidmy, bulletin n. 2, 1990, 116 p.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s du colloque de Tenerife (Espagne), novembre 1993, Tours, SIEY, volume 11994, 261 p. et volume 21995, 300 p.

*Marguerite Yourcenar. Écritures de l'exil*,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Kent

University (Canterbury) du 16 au 19 juillet 1997, Louvain-la-Neuve, Academia Bruylant, 1998, 286 p.

5. 주요 연구논문

ALLAMAND Carole, "Marguerite Yourcenar on Campus", in *Marguerite Yourcenar et l'Amérique*, Bruxelles, Cidmy, 1998, pp. 95-103.

CAVAZZUTI Maria, "La petite sirène : une écriture solipsiste de l'amour". in *Marguerite Yourcenar. Écritures de l'autre*, Montréal, XYZ, pp. 255-264.

COUNIHAN Francesca, "Accueillir l'Autre dans son altérité : les traductions américaines de Marguerite Yourcenar", in *Marguerite Yourcenar. Écritures de l'autre*, Montréal, XYZ, pp. 117-126.

LOUCIF Sabine, "Marguerite Yourcenar face à la postérité : étude de réception transculturelle (France, Belgique, Etats-Unis)", in *Les diagonales du temps*, Bruno Blanckeman (dir.),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7, pp. 341-362.

RENARD Paul, "Yourcenar, Spirituals, Gospels, Blues", *Nord*, n.5, 1985, pp. 62-69.

SARDE Michèle, "De la prison à la planète la dimension universaliste de l'exil en Amérique", in *L'Universalité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SIEY, 1995, pp. 175-183.

SHURR Georgia Hooks, "Marguerite Yourcenar et le drame noir américain", in *Marguerite Yourcenar et l'Amérique*, Bruxelles, Cidmy, 1998, pp. 27-57.

❖ ABSTRACT

## The American influence on the literary works of Yourcenar

Jung-Sook OH

Although Marguerite Yourcenar, a representative French woman writer, lived 47 year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39 to 1987, the American influence on her life has not been studied either at home or abro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ronologically the American influence on the following three literary works of Yourcenar: *The Little Mermaid* (1942), *River Deep*, *Dark River* (1966) and *Recluse* (1982).

*The Little Mermaid* is a drama, presented in musical format, about the identity crisis and inner conflict of Yourcenar. Unlike the little mermaid who burst like a bubble in Hans Christian Andersen's fairy tale, Yourcenar associates her death with the image of ascension. *River Deep*, *dark river* is a translation of the Negro spiritual expressing the suffering of African Americans. *Recluse*, her last novel, deals with the life story of a simple man living in nature on a small island. This novel shows Yourcenar's desire for a pure world that is not defiled by human greed.

Yourcenar sponsored major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al groups in her life, and donated her entire fortune for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The American influence on the literary works of Yourcenar can be summarized as a "great turning point", because she was transformed from a humanistic writer into an intellectual actor.

---

### Key Words

유르스나르, 『인어공주』, 『깊은 강, 어두운 강물』, 『은둔자』, 미국, Yourcenar, *The Little Mermaid*, *River Deep*, *Dark River*, *Recluse*, United States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